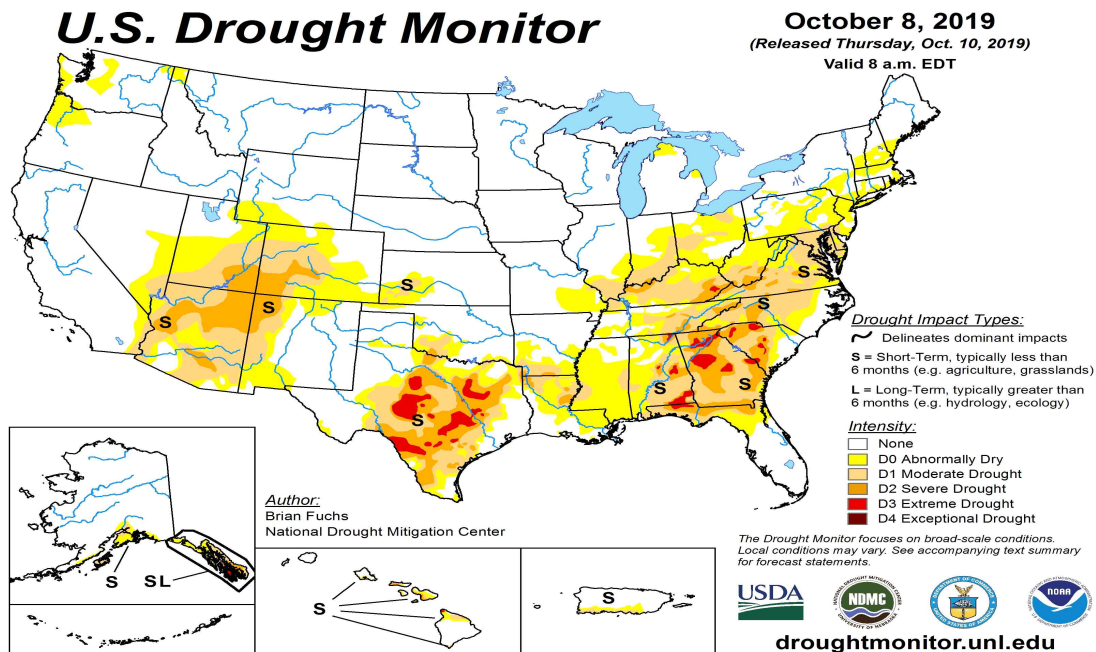


10월 16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6, No. 81)

□ 미국 기후 현황(10/6~10/12)

철 이른 눈 폭풍이 10월 8일부터 평원 북부와 중서부 먼 위쪽의 일부를 강타하여 여러 날 계속되었다. 이 눈으로 겨울 밀 파종과 사탕무 수확 등의 야외 작업이 다시 중지되었다. 게다가 소량의 봄밀이 아직 밭에 남아 있었다. 폭풍을 따라온 추운 날씨 때문에 넓은 면적의 평원과 옥수수 벨트의 서쪽 및 중부 전체의 2019년 재배철은 종료되었다. 동결 피해를 입은 지역은 급작스러운 추위 때문에 완전히 성숙하지 못했던 옥수수의 낱알에 양분 축적이 정지되었지만 이미 대부분이 낙엽이 지고 있었던 콩은 심한 피해를 입은 비율이 작았다. 10월 12일 현재, 평원의 먼 남쪽, 텍사스 북부에서도 동결이 보고되었다. 같은 날 아침에 동결은 오자크 고원까지 이르렀고 동쪽으로는 일리노이와 위스콘신의 많은 곳들까지 확장되었다. 중서부에서는 10월 13-14일에 다시 한 번 동결이 언급되었다. 먼 남쪽과 동쪽에서는 평원 남동부에서부터 테네시와 오하이오 계곡 중앙까지 소나기와 폭풍우가 강한 비를 뿌렸는데 지역적으로 2-4인치 또는 그 이상이었다. 강한 소나기가 플로리다 반도 일부를 침수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텍사스 남부뿐만 아니라 대서양 중부 및 남부 주들을 포함한 넓은 구역에는 주말까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단기 가뭄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었다. 가뭄 조건이 야외 작업에는 유리했지만 방목지와 가을에 심은 작물들은 계속 고통을 겪고 있었다. 주말에 다소 시원해지기는 했지만 남동부는 많은 곳에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5° F 이상 높았다. 한편 캘리포니아의 많은 곳, 대부분, 남서부는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다. 이런 건조한 날씨는 때때로 바람과 낮은 습도를 동반하는데 특히 캘리포니아 남부에서는 들불 사태를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건의 화재를 빠르게 확산시키기도 했다. 로키산맥 북부 구역과 고원은 전체적으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0° F 이상 높았다.



□ 농업 현황 요약(10/7~10/13)

나라의 대부분이 비가 거의 없었지만 플로리다, 미시시피와 테네시 계곡, 몬타나, 남북 다코타 일부에서는 상당한 양의 비가 내렸다. 미시시피와 테네시 계곡의 일부 장소에는 4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 미국의 서쪽 절반은 전체적으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3° F 이상 높았고 로키 산맥의 북쪽 구역과 대평원은 평균 기온이 40° F 미만으로 보고되었다. 대조적으로 남동부 일부는 기온이 평년보다 6° F 이상 높았다.

□ 세계 기후 현황(10/6~10/12)

■ 유럽: 북유럽 전체에 비오는 날씨가 계속되어 프랑스에서는 가뭄을 더욱 완화되었고 다른 곳에서는 수분 공급량이 상승되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3주 연속 내린 중간-강한 비(10-80 mm)가 겨울 작물 활착에 필요한 토양 수분을 개선했다. 최근 내린 비로 독일에서는 계속되던 가뭄 걱정이 사라졌고 프랑스에서는 남부 지역의 가뭄이 줄어들었다. 마찬가지로 광범위하게 내린 비(10-70 mm, 하지만 독일 북동부와 폴란드 북서부에서는 10 mm 미만)가 북유럽 나머지 지역 전체에서 밀과 유채의 활착을 위해 적당-풍부한 수분 저장량을 유지 해주었다. 불가리아 북부와 루마니아 남부는 대체로 비껴갔지만, 발칸반도 남부에도 가볍거나 적당한 소나기(2-20 mm)가 내려서 단기 가뭄을 완화시켜 겨울 작물의 출현과 활착에 도움을 주었다. 최근에 내린 소나기에도 불구하고 다뉴브 강 계곡은 60일 총 강수량이 지역적으로 평년 대비 50% 미만에 머물렀다. 기타 남유럽 지역을 보면, 그리스와 이탈리아에는 5-50 mm의 비가 겨울 밀을 위한 수분 비축량을 상승시켰지만 여름작물 수확 속도를 떨어 뜨렸다. 한편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건조한 날씨로 늦여름 작물 수확과 초겨울 곡류 파종을 촉진했다.

■ 구소련(서부): 비가 천천히 동쪽으로 이동하여 흑해 연안에 인접한 핵심적인 재배 지역에 겨울 밀을 위한 유익한 수분을 공급해주고 있었다. 느리게 움직이고 있는 한랭전선이 흑해 연안에서부터 서러시아와 북러시아에까지 적당하거나 강한 소나기(10-65 mm)를 촉발시켰다. 추가로 내린 비는 우크라이나 남동부의 가뭄을 완화시켰고 서러시아에는 적당하거나 풍부한 수분 공급을 유지했다. 현재 러시아에서 겨울 밀 활착 전망은 여전히 좋거나 우수했고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는 현저히 개선되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남쪽 구역은 전체적으로 겨울밀이 대체로 11월 후반기에 휴면 상태로 들어가고 좀 더 북쪽 재배 지역에서는 11월 초에 들어간다.

■ 동아시아: 북중국 평원 일부와 양쯔 계곡 중부 내에 아주 필요했던 소나기(10-50 mm)가 내려서 밀과 유채 파종이 시작된 현재 토양 수분을 보충했다. 사천 성에는 훨씬 더 많은 총강수량(100 mm 이상)이 보고되었는데 이 지역은 비가 꾸준히 내려서 단기(4-6주) 및 장기(6주 이상) 수준 조건 둘다 계속 좋았다. 북동부는 날씨가 건조하여 수확을 도운 반면 남동부는 폭염(기온이 30° C 이상)과 건조로 늦작물 벼의 성숙을 진전시켰으나 가뭄은 심화시켰다. 기타 지역은, 태풍 하기비스가 주말에 일본으로 접근하고 있었는데 폭풍에 앞서서 전국에 걸쳐서 계절을 벗어난 강한 소나기(50-200 mm)가 내렸다.

■ 호주: 서호주 밀 벨트의 북부와 서부 지역은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 미성숙한 겨울 곡류와 유지작물들의 발달을 휘방했다. 반면에 남부와 동부의 재배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광범위하게 내려서(5-18 mm) 밀, 보리, 캐놀라에게 더욱 유익을 주었다. 먼 동쪽은 날씨가



대체로 건조하여 남호주와 북빅토리아에서는 생식 및 종실 비대 중인 겨울 곡류와 유지작물에게 필요한 수분 공급을 감소시켰다. 이 주들은 최근 날씨가 더 건조해지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 기간 동안 작물의 상태가 대체로 양호하기는 했지만 수확량 전망을 유지하려면 향후 몇 주 내에 비가 더 와야 한다. 그 밖의 지역은, 뉴사우스웨일즈와 퀸즐랜드에 있는 밀 벨트의 동쪽 구역에 산발적인 소나기 (5-2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내렸다. 일부 지역에서 이 비는 표토를 적셔서 지역의 여름작물 파종, 발아, 출현에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동호주의 많은 곳들에서 장기간의 가뭄을 끝내려면 훨씬 광범위하고 많은 양의 비가 필요하다. 그 비가 단비인 것은 맞지만 재배 기간 중 너무 늦게 왔기 때문에 그 재배지역에서 가뭄에 스트레스를 받은 밀과 기타 겨울 작물들에게 의미 있는 유익을 주기는 어려웠다. 남호주와 빅토리아는 평년 기온이 평년 부근이었고 (평년보다 최대 2° C 낮았음) 남퀸즐랜드, 뉴사우스웨일즈, 서호주는 평년보다 높았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년보다 1-3° C 높았음).

■ 아르헨티나: 중앙 아르헨티나에 지역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발달했지만 다른 지역은 즉시 비가 와야 할 필요에 놓여 있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북부와 산타페와 엔트레리오스에 있는 인근 장소들에는 총량이 50 mm 가 넘는 경우가 기록되었다. 하지만 그 비는 국지적이어서 라 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부에 있는 주요 겨울 곡류 지대를 포함하여 중앙 아르헨티나의 다른 곳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아르헨티나의 북부 농업 지대 (살타에서부터 동쪽으로 코리엔테스를 지나기까지)에도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는데 겨울 곡류뿐만 아니라 해바라기와 기타 일찍 파종한 여름작물들을 위해서 비가 더 와야 할 것이다. 주간 평균 기온은 주요 농업 지대 모두에서 평년보다 2-6° C 높았고 낮 최고 기온은 라 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 서부 같이 먼 남쪽에서 낮은 30도 대 (섭씨)까지 올라갔다. 계절을 벗어난 폭염 (낮 최고 기온이 40° C에 이름)이 북서부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와 인근) 전체로 확대되었고 코르도바와 엔트레 리오스에서 북쪽으로 기타 농업 지대는 중간 및 높은 30도 대의 고온 수치를 기록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10월 10일 현재 해바라기 파종은 작년과 같은 속도로 39% 완료되었다; 아르헨티나 최대 썬씨드 품종 생산지인 부에노스아이레스는 2% 완료되었다. 옥수수는 작년에 비해서 7 포인트 낮은 23% 완료되었다. 한편, 특히 서부와 남부 생산 지대에서는 건조가 영양 및 생식 성장 중인 밀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언급이 있었다.

■ 브라질: 중앙 브라질에서 계절 소나기가 계속되었지만 콩 파종 면적을 확대하려면 비가 더 광범위하게 내려야 한다. 마토그로소의 많은 지역과 인근에 있는 고이아스와 토칸틴스의 장소들에 총 25-100 mm (지역적으로 더 높은)의 강수량이 기록되었다. 비슷한 양의 강우가 미나스 게라이스 남부와 서부에서 기록되었지만 상파울로에 있는 다른 장소들과 북동쪽으로 서바히아를 지나기까지 보다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다. 콩 파종 면적을 넓히려면 위에 언급한 지역들 전체에 비가 더 내려야 한다. 마토그로소 정부에 따르면 10월 11일 현재, 작년의 27% 및 5년 평균 19%와 비교해서 콩은 16% 파종되었다. 남브라질은 더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는데 마토그로소 도 술과 상파울로의 남쪽 구역에서부터 남쪽으로 리오그란데 도 술을 지나기까지 총 강수량은 5-25 mm에 불과했다. 리오그란데 도 술에서는 날씨가 비교적 건조하여 지난 주 심한 비가 내린 이후 야외 작업에 도움이 되었다. 리오그란데 도 술 정부에 따르면 10월 10일 현재 옥수수는 58% 파종되었다. 이 수치는 5년 평균 속도 (56%)보다 약간 앞선 것이다; 밀 파종은 1% 완결되었다. 대조적으로 파라나에는 여름작물의 발아를 위해서 비가 추가로 더 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부 보고에 따르면 2019/20 첫 작물 옥수수는 10

월 8일 69% 파종되었고 콩 파종은 22% 완결되었다. 한편 파라나에서 보고에 따르면 밀은 100% 파종되었다.